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전도 제자의 비밀"
성경	빌립보서 3:1-21
일시	2018년 05월 20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2. 전도제자의 소원이 있습니다.(빌립보서 3:9)
3. 전도제자의 목표가 있습니다.(빌립보서 3:12~14)
4. 전도제자의 배경이 있습니다.(빌립보서 3:20)
5. 전도제자의 힘이 있습니다.(빌립보서 3:21)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 성경말씀 (빌립보서 3:1-21)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 **요약 자료** ❁

전도 제자의 비밀 (빌립보서 3:1-21)

1. 성공과 그 이후의 일이 있습니다.(빌립보서 3:1-8)

• 오늘 사도바울이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 가지 ‘전환점’을 꼭 여러분은 맞이하셔야 된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살고 ‘물질’을 위해 살고 ‘세상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사는게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한번은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 ‘아닌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 가는게 아닐텐데...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만의 계획하신 길이 있을 텐데...’ 이게 찾아져야 된다. 그걸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 또 한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얼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한 1년 반인가를 일을 했다. 일을 하는데... 그 사장이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엘리트들 만났다. 의사들을 만나고 돈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나? 아니다. 배우지를 못했다. 이 사람의 최종학력은 뭐냐? 중학교 졸업이다. 그런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당당한 거다. 왜? 세상 살아갈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의 많은 연결 된 사람들을 모아서 종합 그룹을 만든 거다. 그래서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의 이 CEO였던 이 사람이 갑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찰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무서이다. 세금을 맞은 거다. 그래서 다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안에 있었던 모든 서류를 다 빼앗긴 거다. 그래서 수천만 원의 사실은 세금을 맞은 거다. 제가 아침 일찍 그 회사에 출근해서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사장 방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거다. 등을 돌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다.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는데 그 뒷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처량한지... 예전에는 당당했다. 어느 정도 당당하냐면 사고 났다. 무슨 사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달려가던 차가 박은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뒷사람이 분명히 잘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막 변명을 하니까 다시 자기 차에 들어가서 이만~한 몽둥이를 하나 들고 나온 거다. 들고 나오더니 그 변명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거다. 패면서... 딱 명함을 주면서 “치료비 필요하면 얘기 해! 얼마든지 갚아 줄 테니까.” 하고 명함을 딱 주고 가더라. 이정도로 당당한 사람이다. 그러니 돈?~ 힘? 모자란 것이 없었던 사람이 난데없이 세무서에서 만난 그 세금... 한 번 만나고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딱 들어가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있지 제 미래가 보이는 거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면 결국은 저 자리에 가게 될 텐데... 저 자리에 가서 저 끝 모습이 저 모습이라면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냐?’ 이걸 아니다 싶더라. 도저히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거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다. 그리고 또 한 회사를 들어간 거다. 거기도 한~참 일을 했다. 근데 역시 돈을 긁어모으고 사람을 모집하고 영업소를 번창하는 많은 일을 해 가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매 달 월말만 되면 늘 담배 피우고 술에 젖어 있다. 제가 그 때 20대 였는데... 이 분은 한 40대 중반 이었다. 역시 저는 그 뒷모습을 보게 된 거다. '내가 만약 이 회사에서 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결국 저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저 자리에 가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도저히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거기도 그만 뒀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가?'라고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일과 미래의 직업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나게 됐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내 인생에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고 미래가 불투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너에게 앞으로 계속 있게 될 텐데... 그 운명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데... 길이 없잖은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뒤에 묶여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어디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 그리고 '나' 밖에 모르고 '돈' 밖에 모르고 오직 목표는 '성공' 밖에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국제금융, 아엠에프(IMF)를 만난 회사원들 가운데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리고 기업이 정리되고 은행이 문을 닫고 하루아침에 가장이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근데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려 줄 수가 없는 거다. "내가 지금 짤렸다." "내가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라고 말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침 평상시 하던 대로 머리를 감고 양복을 입고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딱 나온다. 대문을 나와 딱 갈 데가 없는 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또 역전에서... 또는 남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 먹으면서... 그리고 시간 되면 정상적으로 퇴근 한 것처럼 다시 돌아간다. 그거를 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근원도 찾지 못하고 내 삶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어느 날... 덜컥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구지?'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에 이런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이 계속 살아가시겠는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다. 가정 배경? 끝내주게 좋다. 율법의 가문이고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고 학위라는 학위는 다 받았다. 그런데 인생의 참 된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질도 있고 열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파 했던 그런 열정도 대단하다. 그런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게 언제가? 다메섹을 지나가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에 뭐가 났는가? 전환점을 맞이한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만나는지 아시는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날 때 바뀐다. 바울만 그렇겠는가? 저도 그랬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귓등으로 듣는다. 듣고 흘려버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안 들린다. 왜? '나' 밖에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한다.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들이어 댈다. 뭔가 앞에 베네펀이

있고 뭔가 나에게 뭔가 목표가 있으면... '성공'이라는 그 골 앞에 지금도 땀나도록 뛰고 있다. 그게 맞는가? 진짜? 저는 인생의 전환점은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다. 세상의 기준? 문화? 아니다. 언제 전환점을 만나는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운명에 묶인 자임을 알고 나는 죽으면 영원한 저주,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건질 수 있는가? 내 스스로 사탄의 울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가?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 죽음과 지옥 문제? 해결 할 수 있는가? 절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했다. 그 은혜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게 된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누구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분이 예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고백이 고백 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완전 달라진다. 그게 바울이었다. 그게 제가 여러분 앞에... 참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나만의 간직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 돈 자랑하는 그 사람 앞에 내 놓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지식 자랑하는 그 사람 앞에 내 놓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권력 자랑하는 그 사람 앞에 내 놓을 수 있는 '나만의 비밀'... 그게 뭔지 아시는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성공한 이후에 깨달았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소원'이 생겼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배경'이 생겼고 '새로운 인생의 힘'이 생겼 거다. 그게 오늘 전도 제자로 살아갔던 바울이 가졌던 비밀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른 것... 복음을 새롭게 여러분이 새로 심으셔야 된다. 그게 오늘... 그래서 오늘 일부러 빌립보서 3장을... 전 장을 다 읽었다. 보통 설교 본문이 한, 두절 보통 읽지만은... '아, 이것 다 읽어야 되겠다.' 왜? 이 바울의 과거... 바울의 인생 전환점...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뭐냐면 미래와 목표가 너무 정확하다. 한 번 이런 기회에... 여러분, 만약에 흰 종이가 있다면 한 번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한 번 요기 빌립보서 3장처럼...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정리해 보시라. 그리고 내 인생의 참 된 가치는 어디에서 찾았고 나는 무엇을 통해 받게 되는지...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그려보시라.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 하며 무엇을 위해 살건지. 한 번 그려보시라. 애들 보고만 그리라고 하지 말고. ^^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 그려보시라.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있죠. 너무 행복했다. 누가 그러드라. 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구름 위에 올라가면 떨어진다. 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 그 때부터 막 사정 없이... 다른 것은 말 못 하겠더라. 그래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선후배들에게... 심지어는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신학교 교수님 제자에게 막~ 복음

을 전했다. 그런데 다 나와 같지 않더라. 나는 너무 좋은데... 난 너무 행복한데... 이 복음 알고 나서 너무너무 내 인생에 답을 얻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기본 아니야?' '너 그거 이제 알았어?' 이런식으로 툭툭 반응하니깐 전 깜짝 놀랐다. 근데 그들에... 그런 말을 하는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저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대학으로 들어가고... 병원으로 들어가고... 막 문이 열리면 말씀운동하고... 막 그랬던 거다. 지금도 저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게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라.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하던지 아니면 그런 사역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사역자를 초청해서 매주마다 적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휴스턴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이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복음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민에게 기치를 들어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인생의 전환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과 사역에 대한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러면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게 답이 나온다. 그러면 주일이 기다려진다. 말씀이 그리워진다. 그리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 그럼 하루하루가 뭐가 달라진다. 행복하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쓰던 단어가 뭐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뭘 기뻐하?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바울의 소원이 뭐지 아시는가? '그리스도께 발견 되는 것'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소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되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은 어떤지 아시는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받은 자."라고 기록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에베소서 2장 3절,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 한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나' '그러나' 이전에 이렇다 할 지라도 '그러나'...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기쁨 때문에 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뭐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바울은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구원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발

견 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계속 되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은 늘 목표 삼았던 거다. 바울의 입에서 열면 뭐가 나오는지 아는가? 복음 외에는 딴 말이 안 나온다. 왜? 과거에 다 해 봤다. 공부 해봤다. 돈 벌어봤다. 명예 얻어봤다. 높은 지위, 권력 다 얻어봤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나? '배설물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다 독이 돼서 나를 해롭게 했어. 하지만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고 나서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 곧 그리스도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는 인생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어딘지 말 했다. 여러분, 지식 보다 돈 보다 더 힘 있는게 뭐지 아시는가? '빚'이라는 거 아는가? ^^ '빚' 여기 앉아 계신 몇몇 분들... 혹시 '빚'이란 한자 아시는가? '빚.' '빚'이라는 한자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 여 앉아계신 어르신 중에... 한자를 공부했던 분 중에 '빚' 백자를 아시는가? ^^ 한 검사가 이 법을 가지고 이 불의한 이 국가를... 세상을 바꾸겠다고 공부했던 한 검사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유도 없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친구가 달려가 봤는데 아무 증거가 없다. 왜 죽었는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다. 그래서 막~ 조사하던 중에 이 사람 옷을 벗기고 검사하다 보니까 여기 가슴에 한자 하나가 딱 적혀 있었다. 그 한자가 바로 무슨 자냐면 '빚'자였다. '빚'자. 근데 이게 사전에도 없단다. ^^ 중국에도 이런 글자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 글자를 딱 뽑아서 봤더니 이 사람도 꽤 무식... 국어 선생님이었다. 국어 선생님인데 아무리 봐도 이 글자가 사전에 안 나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한글 뭐 한자... 학자들은 다 물어 봤는데 모르더라. 어떤 글자인지 아시는가? 쌀 미(米)... 쌀이 있고 밑에 여자가 있다. 계집 녀(女). 그리고 오른 변에는 쇠 금(金)자가 있다. 요 세 글자가 묶여져 있는게 '빚'자란다. 그러니까 빚만 있으면 먹을 것. 빚만 있으면 원하는 여자. 빚만 있으면 모든 돈. 다 얻을 수 있다. 그게 빚이란다. 여러분. 세상은 빚이 있어야 산다. 조금 무식해도 조금 모자라도 빚이 있으면 빚 자랑 할 수 있다. 들고 다니는 빚 말고. 배경. 배경. ^^ 근데 사도바울의 빚은 뭐지 아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 '여자', '권력' 이런게 빚이지만은 사도바울의 배경은... 빚은 '하나님 나라'란다. 여러분의 빚은 뭐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세상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뭘 갖고 있는가? 씨티즌쉽(Citizenship)을 갖고 있던 말이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언제 되는가? 인생의 전환점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녀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뜻한 자를 부르시고... 나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흘리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곧 누구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당연히 어디 가는가? 우리는? '천국' 갑니다. 좋은 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곳을 간단 말이다. 아시는가? 여러분의 배경이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의 신분이 자녀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다. 그 나라에 뭐가 있는가? 시민권. 파워가 있던 말이다. 권력이 있던 말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어깨 짝! 펴고 다니시란 말이다. 어? 돈 없다고 꾸부정하고... 배운거 없다고 꾸부정하고... 남의 큰 집보다 작은 집에 산다고 꾸부정하고... 내 자식이 남들 보다 좀 덜 똑똑하다고 꾸부정하고... 땅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얼굴 뺨뺨이 쳐들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 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경을 잊지마시란 말이다. 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뭘 줬는가? 힘을 줬다. '힘.' 어떤 힘을 주셨는가?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무릎 꿇는 누가 있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 분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이게 여러분의 힘이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우리의 힘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삼으신단다.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뭔지 아시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힘과 배경이 된다. 그 약속이 말씀이다. 말씀. 이제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시는 거다. 그래서 이 약속이 누구의 것인가? 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 '어, 저 목사님 메시지야.'가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된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다. 그게 뭐가 되는가? 힘이 된다. 힘이다. 오늘 아침도 개인적으로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 힘은 누가 주시는가? 나 보다 강한 자가 주는 거다. 그 강한 자가 누구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 그 힘의 근원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할 때 늘 기도 하는게 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늘 기도하다가 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이런 확신이 딱 생기는 거다. '되어 주세요. 해 주세요.'가 아니고 결론이 딱 났다. 예수는 누군가? 그리스도. 맞는가? 아닌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왔는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결론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 자녀. 신분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절대 안 바뀐다. 우린 절대 마귀 자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절대 계획이 뭐가? 자녀로 부르시고 모든 열방,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불렀잖은가? 다만 지금 때가 아니어서 '그 때'를 찾기까지 방황 할 수도 있다. 어른짓... 판 짓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결국 뭐하는가? 결국 세계복음화 한다. 정~ 못 깨달으면 고통가운데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준단 말이다. 안 그런가? 고난도 세계복음화다.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 뭐가 된다? 전도와 선교로 다 연결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전부 뭐와 연결이 되는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영광을 들어내는 일에 다 쓰임 받는 다는 거다. 그 지금 현재로 당하는 문제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하는 거다.

지금. 지금 고통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거란 말이다. 진짜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뀐다. 그래서 '어?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딱 났다. 세 가지 꼭 기도하기로 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이 아이에게서 발견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 하나님 자녀로 주의 성령께서 성전 삼아 도장 찍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 아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 전도, 선교, RUTC운동인 램넛트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창세전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 아이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딱 생겼다. 때로는 진짜 이 같잖은 일들 많다. 제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램넛트가 말이지 그렇지 못 한 짓을 할 때는 속에서 막~ 이런게 막 올라온다. 막. 그래도 꼭~ 참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이를 역사하시면 내가 매를 들고 쌍욕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나? 내가 건드리는 것 보다는... 감정 상하잖는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손 대면 두 손, 두 발 다들텐데... '아, 나에겐 믿음만 고백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전도 제자로서의 그 비밀... 있으셔야 된다. '복음의 비밀.' 여러분이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무엇을 배경하고 있는지 이 비밀이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나의 진짜 힘이 뭔지. 그 비밀이 있으셔야 된다. 그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발견 되셔야 되고... 또 이게 빛을 발하는 캠프 현장에서 이게 발견 된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라. 그 똑똑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있는지...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른다. 인생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 그게 뭔지 아시는가? 그게 '캠프'다. 이번에 대학 캠프를 통해서 휴스턴 지역에 한국의 대학 캠프팀과 휴스턴의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팀을 이루어서 메디컬센터로 휴스턴 대학교로 또는 칼리지 스테이션으로 갈 예정이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전환점 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내 삶의 전환점을 또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줄 거라고 전 확신한다. 한주간 동안 참여하시는 분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환점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b>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b>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전도사:	권 예나 전도사
연락처:	(713) 907-0854
이메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